



## 'Good AI 어워드' 개최...LG AI 연구원이 영예의 대상 수상

메트로신문 채윤정 기자 | 2022-12-20 11:14:50



Good AI 어워드 수상자와 참가자들이 시상식이 끝난 후 화이팅을 외치며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IAAE 국제인공지능&윤리협회

'Good AI 어워드(Awards)'가 지난 14일 한국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 회관에서 열렸다.

Good AI 어워드는 AI 개발과 상용화에 있어 우수한 성능과 윤리적 기준을 모두 갖춘 주체(기업·기관·학계·개인)를 발굴, AI 산업의 올바른 성장을 독려하고자 올해 처음 마련된 행사다. 기존에 좋은 AI를 구분 짓던 '기술력'에 더해 기술 사용의 안전장치인 'AI 윤리' 확보에 앞장선 기업을 시상한다.

'IAAE 국제인공지능&윤리협회'가 주최하고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NIA)', '정보통신산업진흥원(NIPA)' 후원으로 열렸다.

이번 시상식은 정확하고 공정한 심사를 위해 전문성과 공신력을 갖춘 11명의 AI 전문가가 심사위원으로 참여했다. 한국 1세대 소프트웨어 개발자이자 국내 AI 연구 분야 선구자로 불리는 김진형 인천재능대 총장(KAIST 명예교수)이 심사위원장을 맡았고 ▲서영주 포스텍 AI 대학원 원장 ▲변순용 서울교육대 교수 ▲황기연 홍익대 부총장 ▲윤명숙 NIPA 디지털헬스산업 팀장 ▲주윤경 NIA 지능정보윤리팀장 ▲이경환 전남대 교수 ▲송길태 부산대 AI융합연구센터장 ▲김우창 KAIST 데이터사이언스 대학원장 ▲이청호 IAAE 회장 등이 심사위원으로 참여했다.

'LG AI연구원'이 영예의 대상을 수상했다. 그 뒤를 이어 'KB국민은행'이 최우수상을, '포티투마루'와 '온코크로스'가 우수상을 받았다.

IAAE와 THE AI가 별도 마련한 특별상 기관부문에는 정보통신정책연구원(KISDI) 지능정보사회정책센터, 학계부문에는 서울여대 바른AI연구센터, 개인부문에는 이찬규 중앙대 인문콘텐츠연구소장, 김대원 카카오 인권과기술윤리팀장, 권템테크엔시큐, 오섬피아, 아이콘, LG AI연구원이 개발한 AI 휴먼 킬다(Tilda)가 수상자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LG AI연구원은 기술력과 윤리 부문에서 모두 높은 점수를 받아 대상을 수상했다. 또 자체 개발한 AI 휴먼 '틸다'도 개인 부문으로 접수해 특별상을 수상, 2관왕을 했다.

LG AI연구원은 기술력 부문에서 국내 최초로 개발한 초거대 멀티모달 AI '엑사원'을 개발하고 이를 연구에 머무르지 않고 실제 산업에 적용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또 세계 최고 권위의 AI 학회에서 지난해 18편, 올해 47건의 논문을 발표하는 등 꾸준한 연구 성과를 이어간 점도 좋은 점수를 받았다.

AI 윤리 부문에서는 지난 8월 신뢰할 수 있는 AI를 개발하기 위한 5대 핵심 가치(인간존중, 공정성, 안전성, 책임성, 공공성)를 담은 'AI 윤리원칙'을 발표하고 이를 실제 업무에 적용하기 위한 'AI 윤리 태스크포스(TF)'를 신설하는 등 AI 윤리 확보에 기여한 점이 높게 평가됐다. AI 윤리의 한 축인 '설명가능한 AI'를 LG그룹 계열사와 함께 연구하고 있고 AI 윤리 이슈를 논의하는 협의체인 'AI 윤리 워킹그룹'을 구성하는 등 꾸준히 AI 윤리에 관한 연구를 하고 있는 공로도 인정받았다.

최우수상을 받은 KB국민은행은 금융 분야에 특화된 AI 기술을 개발하고 이를 적극 사용하고 있는 점이 높게 평가됐다. 특히 기존 금융권에서 쉽게 시도하지 못한 비정형 데이터를 처리·분석할 수 있는 AI 기술을 개발한 점이 기술력 분야에서 높은 점수를 받았다.

또한 KB국민은행은 금융 분야에 AI를 활용하는 만큼 기술 개발과 활용에 윤리를 강조하고 있다. 지난 10월 국내 금융사에선 처음으로 'AI 윤리기준'을 제정했다. 이 윤리기준은 그룹 임직원, 금융소비자를 대상으로 의견을 수렴하고 김명주 서울여대 정보보호학과 교수의 자문을 받아 만들어졌다. AI 도입과 운영, 관리 등 단계별로 준수해야 할 총 7가지 윤리 가치를 담고 있다.

우수상을 받은 포티투마루와 온코크로스도 각각 기술력과 윤리 준수 면에서 다른 신청기업보다 높은 점수를 받았다. 포티투마루는 NLP 기반 기계독해(MRC)를 전문으로 하는 회사다. AI가 사용자의 질문 의도를 이해해 사용자가 필요로 하는 답을 찾아주는 기술을 공급하고 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함께 AI 개발 단계에서 신뢰성 확보를 위해 기술적으로 확인해야 할 요구사항을 담은 '개발 안내서(가이드북)' 발행에 참여했고 TTA와 협력해 AI 신뢰성 확보를 위한 모델 개발 가이드라인 컨설팅에도 참여하는 등 국내 AI 신뢰성 확보에 기여했다.

온코크로스는 AI기술을 통한 신약 개발 플랫폼 기업이다. 플랫폼으로 신약후보물질을 탐색, 이를 필요로 하는 제약 회사에 기술 이전하는 사업을 하고 있다. 질병에 의한 유전자 발현 패턴 변화 특징과 약물 투여에 의한 유전자 발현 패턴 변화 특징을 비교 분석하는 '랩터(RAPTOR) AI' 플랫폼을 개발, 질병과 약물의 상호작용을 예측하는 기술 등을 보유하고 있다.

사람의 건강에 영향을 주는 기술인만큼 온코크로스는 AI 윤리 확보에 적극적으로 임하고 있다. AI 편향성과 윤리방침 위배 등을 감시하기 위해 AI 분야를 전공한 교수를 사외이사로 선임, 자체적인 기술 감사를 시행하고 있다. 또 개인정보 침해 방지를 위해 임상윤리위원회(IRB)로부터 필요한 데이터 등을 검토, 승인받고 있다.

특별상 기관부문에 선정된 정보통신정책연구원(KISDI) 지능정보사회정책센터는 2020년 11월 과기부와 함께 '국가 인공지능 윤리기준'을 제정했고, '인공지능 윤리교육 콘텐츠 개발 기준'을 만들었으며, 인공지능 신뢰와 윤리에 관한 인식 제고 및 공론화를 위해 산관학연 전문가들로 구성된 '인공지능 윤리정책 포럼'을 운영하는 등 정부의 AI 윤리 정책을 주도하고 있는 기관이다.

학계부문에 선정된 서울여대 바른AI연구센터는 2018년 6월 발표된 국내 최초의 AI 윤리 준칙인 'AI 윤리 가이드라인(Seoul PACT) 및 헌장'을 제정했고, 딥페이크 생성 이미지 판별용 AI, 프라이버시 보호를 위한 화상채팅 AI 기술 등을 개발했으며, 대학 교양과정으로 'AI 공존 윤리' 교과목을 개설하여 학생들과 함께 인공지능 윤리 준수를 위해 교육하는 등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개인부문에 선정된 이찬규 중앙대 인문콘텐츠연구소장은 2017년부터 국내 최초의 인공지능 인문학 연구기관인 중앙대 인문콘텐츠연구소를 설립하고 운영하며, AI 윤리, AI 인문학에 관한 다양한 연구, 학술대회, 유관 사업 등을 진행하고 있다.

김대원 카카오 인권과기술윤리팀장은 2018년 1월 국내 기업으로는 최초로 사회적 차별 금지, 알고리즘의 독립성 및 설명 의무 등을 담은 AI 윤리 원칙인 '카카오 알고리즘 윤리 헌장'을 발의하고 총괄했으며, 지난 7월 국내 최초로 사내 AI 윤리 부서인 '인권과기술윤리팀'을 신설하여 카카오의 기술윤리 관련 정책 수립과 기술윤리 방향성을 제시하는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심사위원장을 맡은 김진형 인천재능대 총장은 "시상식에 비교하기 어려울 정도로 훌륭한 기술력을 갖춘 기업이 많이 신청했지만, 최근 AI 사용에 있어 윤리적인 부문에 많이 거론되므로 윤리 부문을 노력하고 있는 기업에 많은 점수가 부여됐다"고 설명했다.

전창배 IAAE 이사장도 "이번 Good AI 어워즈를 통해 혁신적이고 인간 중심의 'Good AI'를 실현하기 위해 노력한 주체들을 지속적으로 발굴해 나가고, 소비자와 시민들에게 알리며, 시장과 산업에 'Good AI'를 확산하는 역할을 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채윤정 기자 [echo@metroseoul.co.kr](mailto:echo@metroseoul.co.kr) Copyright © 메트로신문 & metroseoul.co.kr